



인격적이신 하나님

1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로 저희 가정을 덮어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르며 사는 구별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찬송 내가 어둠속에서(131쪽)

3 말씀 읽기 창세기 18:17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4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분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신다면,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분은 영광과 권능으로 성도들을 누르지 않으시며,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치 그들이 친구인 것처럼 대화합니다. 약속하시고 설득하시며 때로는 꾸짖으십니다. 창세기 18:22 이하의 본문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며 타협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분은 자신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분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찾아오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분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동행하시며,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그분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2.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3. 그 분은 그 백성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속에서 그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4.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입니다.

6 삶의 나눔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7 함께하는 기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8 주기도문